

**세계화, 분자파시즘(네오파시즘)과**

**저항: 가타리와 분자혁명**

문학과 종교 연구회

# 들어가며: 들뢰즈와 가타리의 포스트파시즘

거대 파시즘에서 분자(네오)파시즘(moleculr fascism)으로

- “뜨거운 전쟁”
- 스펙타클

- 하찮은 공포
- 전쟁만큼 끔찍한 평화를 유지
- 우리안의 네오파시즘
- 파시즘, 대중의 욕망적 도착

# 자본주의 분자파시즘

- 전체주의는 파시즘(\*전쟁기계적)이 아니다.
- 파시즘을 위협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대중운동인 만큼 그것이 가진 분자적 또는 미시정치적 힘이다.
- 파시즘은 분자적으로(미시적) 차원으로 일상을 파고들어가 주체의 욕망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
- \*\*그램분자의 큰 조직은 하찮은 공토, 영구적 분자적 불안전을 통한 미시지배

\*들뢰즈에게 전쟁기계는 차이의 정치를 실현하는 전략이다. 전쟁기계는 국가 장치에 반하여 장치화된 권력으로의 포획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내재적 성질을 부여받고 코드에 따라 움직이며 닫힌 공간 속에서 최대한의 장소를 차지해야 하는 장기 놀이가 국가 장치의 특성이라면, 전쟁기계는 열린 공간에서 어떤 지점에서든 출현하여 외부적인 관계에 따라 집을 짓거나 포위하고 깨어버리는 등의 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둑 놀이에 비유할 수 있다. 마(馬)나 포(包) 혹은 줄의 코드화된 언표체계와 달리 바둑의 낱알은 익명으로 또는 3인칭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존재한다. 탈영토화를 통해 유목민의 지도그리기. 폴리스대 노모스의 관계.전쟁기계는 순수한 외부성의 형식으로 고찰된다. “운명처럼 다가오기. 원인이나 이유 또는 어떠한 구실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게, 단지 그들의 수가 아침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인 전쟁기계. 마치 전쟁의 신 인드라처럼, 무리를 이끌고 홀연히, 번개처럼 외부로부터 출현한다.

\*\*비슷한 입자들이 모여 원자나 분자가 되고 비슷한 분자들이 모여 더 큰 분자가 되며 가장 큰 분자들이 모여 그램분자적 집합체가 된다.

# 자본주의 분자파시즘

거대 파시즘에서 분자(네오)파시즘(moleculr fascism)으로

## 분자적 파시즘

- 욕망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음

## 분자적 혁명(저항)

- 분열증적, \*리즘적, 탈영토화로 대항
- 다양한 자기 밖 존재와 서로 접촉형성과 연대
- 분열분석: 어떤 체계의 대변, 본질에 의존 하지 않음
- 규범에 불순응, 자기욕망에 충실, 특이성에 창의적 접근
- 환원/편집증적 부르주아 욕망 극복

\*들뢰즈와 가타리는 서구의 사유 방식을 수목으로 모델 삼고, 수목적인 체계는 초월성(transcendence)이라고 부르는 사유 체계와 결부되어 중심이 존재하며 유목적인 체계인 리즘과 대비되는 사유라고 설명하였다. 리즘은 어떤 것이 무엇과 관계하는가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고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유방식으로 내재적이고 유목적인 사유방식이다. 리즘적 사유는 줄기들이 어떤 중심뿌리 없이 접속되고 분기되는 줄기 식물처럼 특정한 사고의 기반 없이 다양한 것들의 차이와 복수성을 다원화하고 그것을 통해 새롭게 변식시킨다. 그것은 하나의 중심에 귀착하는 수목의 체계과 달리 뿌리도 없이 접속, 분화, 단절, 연결되는 시작도 끝도 없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유목적인 체계이다.

# 자본주의 분자파시즘

거대 파시즘에서 분자(네오)파시즘(moleculr fascism)으로

## 결핍의 정신분석(프로이트)

- 욕망의 통제 → 대체 종교
- 의미 정치학

\*특정 '배치'의 관계는 우리를 특정 욕망으로 끌어들이는다. 이것을 '영토화한다'라고 한다. 욕망은 '힘'과 함께 간다. 배치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힘이 작용하는 한 욕망은 힘으로 작동한다. 특정 계열의 접속 향이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배치에서 벗어나고 달라진다. 이것을 탈영토화라고 한다. 모든 배치는 영토화와 탈영토화 성향을 동시에 가진다.

\*\*'탈주(탈주선을 탄다)'란 기존의 배치를 벗어나 다른 배치로 새롭게 변환시키는 것이다. 배치를 변환시키는 욕망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흐르는 것이다. 욕망의 생성과 흐름에 따라 배치는 탈주적 흐름을 타며 새롭게 변환한다. (들뢰즈는 욕망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힘으로 보고 욕망을 긍정한다)

## \*배치/배열, 탈영토, \*\*탈주

- 특이성의 다수성
- 기관없는 몸을 위한 비기호적 우주적 흐름, 탈-의미화
- 욕망의 속성인 자유와 타자와의 리좀적 관계
- 횡단적/다수적 주체 개념: 동성애자-되, 식물-되기' 어린아이 되기, 여성-되기
- 주체의 특이성의 사회적, 사물적 환원을 막고 '특이화 과정'을 보호하기
- 새로운 배합(assemblage)

# 가타리의 분자혁명과 카오스모시스

- 주체는 타자와의 긴밀한 관계에서의 “되기”
- 타자에게 열린, 탈정치적이고 화석화 경향에 대한 투쟁